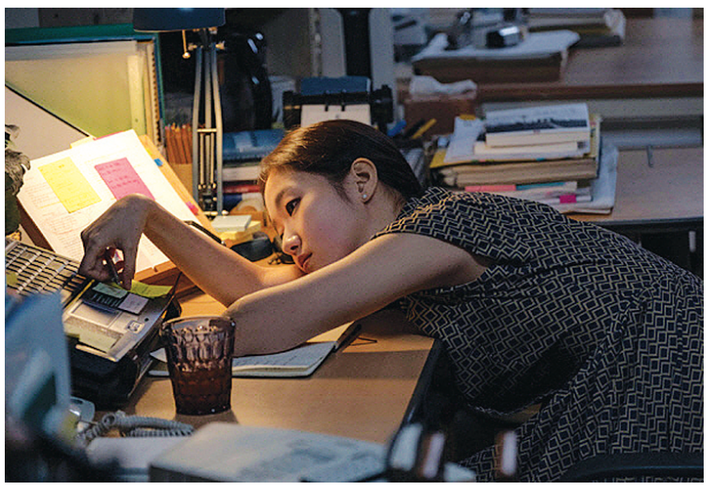
첫사랑의 설렘과 아련함 "나는 그때 기다렸는데…"

시네필과 함께하는 영화산책 〈3〉 유열의 음악앨범

'우연 속 운명' 다시 기적처럼 마주한 두 사람
김고은·정해인 주연…티빙·넷플릭스 상영 중



"나는 그때 기다렸는데……" 영화 속 명대사다. 미수와 현우는 엇갈리는 운명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기다림의 감정을 잘 녹여낸 영화가 있다. '유열의 음악앨범'은 극장가 멀티플렉스를 강타하는 메가톤급 흥행작이나 길이 남을 불후의 명화는 아닐지 모른다. 물론 수년 전 개봉했지만 개인적 취향을 핑계 삼아 소개하고 싶은 영화다. 그런 자야말로 시네필(Cinephile)이 아닌가?

이합집산이라는 테마는 영화를 관통하는 일종의 '코드'다. 시작은 아름답다.

엄마의 유산과 같은 빵집 '미수 제과'에서 언니은자와 함께 일하던 미수(김고은 분)는 교복을 입고 알바를 하고 싶다며 찾아온 현우(정해인 분)를 처음 만나 설레는 감정을 느낀다. 첫사랑에 빠지는 순간에는 주변 모든 것이 그저 느껍고 따사로울 뿐인가 보다. DJ의 목소리, 교복을 입고 찾아온 현우 그리고 빵 굽는 냄새까지 아련하다. 이날은 1994년 가수 유열이 라디오 '유열의 음악앨범'을 처음 진행하던 날이어서 미수의 기억에 유독 눈부시게 각인된다.

'서울의 봄', 'D.P'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정해인, '도깨비', '은교' 등에서 맹활약한 김고은의 색다른 모습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현우는 어린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겪고 소년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렸지만,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성실하게 살아가려 고군분투한다. 이 같은 아픔을 간직한 주인공들의 만남과 '첫'의 설렘이 DJ의 따뜻한 음성과 오버랩된다.

주인공들의 첫 만남을 기리는 영화적 모뉴먼트(기념물)는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활용돼 왔다. '이터널 선샤인'에서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처음 조우했던 기차의 상징성으로, '사랑은 낙엽을 타고' 속 안사와 홀라파가 각자 일행에 섞여 스쳐가던 테이블 등이 떠오른다. '첫 만남'은 앞으로의 플롯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치인데 유열의 음악앨범에서는 그 포인트가 '라디오'다.

시간이 흘러 1997년에는 빵집 형편이 어려워졌고 미수 제과는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마다의 길을 걸었는데 오해가 쌓이면서 멀어진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던 어느 날, 취업준비를 하던 미수 앞에 이삿짐센터에서 알바를 하던 현우가 '보고싶었다'는 말과 함께 찾아온다. 그러나 현우는 만나자 마자 "군대에 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미친듯 서로에게 끌려든 두 사람은 미수의 집에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한다. 미수가 옷가지를 구석에 던지며 "잠깐만 여기 있으라"는 장면은 소박하면서도 설렘이 느껴지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첫사랑의 서툰 모습을 풋풋하게 잘 그린 영화다. 정해인과 김고은이 여태 쌓아온 필모그래피, 배역에 어울리는 마스크, 각자 역할에 몰입하는 적절한 페르소나를 보여줬기에 더 잘 몰입이 됐다.

그래도 영화는 '기적'을 운운한다. 그런 모습은 불가능을 희원하는 첫사랑의 낯빛을 닮았다.

어느덧 영화 속 시점은 2005년 현재, 미수는 암울했던 시간을 벗어나 출판사에서 커리어 우먼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던 현우. 어디선가 라디오 멘트가 흘러나오고 유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수가 곧장 현우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피날레.

두 사람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주거나, 이들이 잠깐 만날 때 나눈 사랑의 시간들을 늘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작품은 신파로 치닫지 않았을 것 같다. 때론 상상력과 여운의 진폭에 의존하는 열린 결말이 아쉬울 때도 있는 법이다.

세간의 지적과 같이 개연성 부족 등은 옥의 티로 남았다. 그럼에도 인과나 기승전결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기적'은 '유열의 음악앨범'만의 섬세한 기적을 남겼다.

애초에 제목에서 선언한 것 같지만, 작품의 반은 '음악'이 다 했다. 유열을 비롯해 이소라, 신승훈, 토이 등 그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90년대 특유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사랑의 탄생과 실패, 한 끗 차이로 갈리는 우연과 운명을 아련한 음악과 함께 감상하고 싶다면 '유열의 음악앨범'은 퍽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영화는 현재 티빙,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뮤지컬 '빨래'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뮤지컬 '빨래' ACC 무대에 펼치다

3월22~24일 예술극장 극장2

서울은 저마다 사연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로 만원을 이룬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장삼이사들은 평범한 이웃들부터 월급이 밀린 외국인 노동자,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빨래'는 지난 2005년 초연 이후 약 10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면서 작품성과 흥행성 두 토끼를 잡은 대표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다.

뮤지컬 '빨래'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오른다.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2 .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ACC 퍼니'의 첫 번째 무대로 기획한 공연 브랜드다. 재단은 3월 뮤지컬 '빨래'를 기점으로 오는 5월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11월 연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등 총 3개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빨래'는 주인공 '나영'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나영 역에 신고은, 솔롱고 역에 노희찬, 주인 할매 역에 강나리, 희정엄마 역에 김송이, 구씨 역에 이강혁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정호 팀장은 "지금까지 홍광호, 이규형, 정문성, 이정은 등 많은 실력파 유명 배우들이 '빨래'에 출연하면서 뮤지컬 스타 등용문으로 불릴 만큼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며 "작품을 통해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모두 4차례(3월 22일 오후 7시30분, 23일 오후 2시·6시30분, 2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ACC재단 누리집에서 구입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가유산청 출범…1946년 이후 미술작품 해외 매매 가능

문화재청, 올해 주요 정책 계획 발표

문화재청은 올해 다양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중건한 광주의 대표 누각 희경루. 〈광주일보 자료〉

국가유산청 출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개관, 미술작품 해외 매매 가능….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22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과 연계돼 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계획 핵심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비롯해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바뀐다는 데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의 해외 매매·전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물론 개정 내용과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사실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은 원형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라는 개념에 묶여 있다 보니 국가 유산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도 개편해 '국가유산청'을 출범시키는 것은 그 같은 시대적 조류와도 맞물려 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센터'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과 연구, 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무형유산 전승을 위한 저변 확대도 중요한 부분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최초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해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도 389건 1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의 한류의 확산과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우리 유산에 대한 지식정보 영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콘텐츠 50여 편을 7개 국어로 제작해 '국가유산 채널' 등에 유통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3월8일까지 신청

"새벽달 저물고 아침이 밝아오니/ 소금장수 노총각 부시시 문 나서네"(초등국악교과서 수록작 '소금장수' 중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국악 작품을 직접 배우고 공연까지 관람하며,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은 3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 청소년 국악체험'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 작성 후 학교별로 공문을 접수하면 된다. 국악 체험은 4월부터 11월 중 진행하며 당일 국악체험(총 6회) 등이 포함된다. 참여 학교는 도서·산간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국악 배우기는 최대 80명, 공연 관람만 할 경우 12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장악과 하나영 주무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영상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전통 국악 공연 관람과 강강술래·민요&사물장구 등 국악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교과서 수록 작품 등을 배우면서 실질적인 국악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 진행. /최류빈 기자 rubi@